

천사를 보내 타락한 소돔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어떻게 그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. 이 시대는 소돔 땅 이상이다. 특히 미국,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다.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고, 3단체와 다민족의 우상숭배로 인해 갈수록 영적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.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똑같이 붙잡는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다. **본문 18=19절에 하나님은 두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,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언약이다.** 첫째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(씨밋의 축복), 천하만민을 살리겠다는 것이다(전도와 선교 축복). 둘째는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하면 그들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이다(렘넌트의 축복)

**1. 뭘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다.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다.**

그 속에 내 인생에 대한 확신, 자부심, 미래 비전, 도전할 모든 것이 나온다. 꼭 두가지 결론의 언약 잡으라.

**1)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민족 살릴 자로 설 수 밖에 없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이다.**

우리가 왜 미국에서 사냐? 이 땅에 모인 세계 모든 민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. 이 이유가 있어야 한다.

왜 공부하고 도전하냐?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내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.

우리가 당하는 문제, 고난도 전부 축복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.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.

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다(요일5:10)

**2) 또 한가지 중요한 결론이 뭐냐? 우리 후대를 살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.**

① **죽은 후에 그의 살아온 인생을 창25:11에 한마디로 표현했다.** “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”. 아브라함이 정말 잘 한 것이 이것이다. 축복을 물려준 것이다.

② **렘넌트를 키운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.** 언약과 축복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된 것이다.

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렘넌트 체자를 키웠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.

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이것이다.

사무엘의 인생 결론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? 다윗을 찾아 기름부어 축복했고, 그 다윗으로 인해 세워진 왕국이 세계를 살리는 왕국이 된 것이다(시57:5, 57:9의 기도).

바울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,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찾아 시대 살릴 목회자(디모테, 디도, 오네시모)로 세웠다.

**2.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뭐냐?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.**

열심은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고, 열정(entusiasm)은 언약(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)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.

**1)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?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.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다. 오직이 되어야 한다.**

왜 유대인들이 노예, 포로, 속국으로 살았냐? 이 언약을 놓친 것이다. 이 언약 놓칠 때 우리도 그렇게 산다.

우리가 당할 실패, 고통, 저주를 그 분이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다(요19:30). 이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고(롬8:28),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(엡3:20), 나 같은 사람과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(행1:8).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.

**2)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각인, 뿌리, 체질이 되게 만들라는 것이다.**

① **각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. 반드시 갈보리의 피 언약의 기준으로 판단하라(행1:1의 갈보리 체힘).**

내 기준, 율법 기준,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다. 거기서 두려움, 스트레스, 불신앙까지 나온다.

내 기준이 뭐냐? 내 상처, 경험, 수준이다.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막고, 축복을 막는다.

율법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저주 받아야 한다. 세상 기준은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이다.

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(그분의 사랑, 계획, 능력)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.

② **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(행1:3의 하나님 나라 체힘)**

하나님의 깊은 것이 체험되면서 내 안에 쓴 뿌리들도 치유되는 것이다. 뿌리는 안 보인다. 그러나 뿌리에서 공급되는 것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, 열매를 맺게 한다. 쓴 뿌리는 결국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(마7:16)

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깊은 내면이 치유된다. 24시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.

특히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,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(롬14:17)

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,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라.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(마12:28).

어느날 내 인생에 중요한 열매들이 시작되고,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.

③ **체질은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(행1:8의 성령의 역사 체힘).**

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수 밖에 없는 체질이 만들어졌다.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체질이 만들어 있다.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.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계속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다.

그때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고,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,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.

영적 씨밋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다. 그 힘으로 시대 살릴 성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.

**3)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붙잡고 오늘 감사하고, 오늘 새 힘을 얻고, 오늘 승리하라.**

문제가 와도 감사하라(빌4:6-7). 지치고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라(사40:31, 고후12:10).

속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(엡6:11). 두려워하고, 낙심하고, 불평하고, 포기하는 것이 속는 것이다.

① **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붙잡으라.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.**

요셉이 그냥 팔려가고, 힘이 없어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.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다(시105:17-19)

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가는 길, 렘넌트가 가는 그 길은 전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.

② **더 나아가 우리는 언약의 순례자의 길(Pilgrimage)을 가는 것이다.**

영어의 순례자의 길(Pilgrimage)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“낯선”(foreign), "타국의“(abroad)라는 단어에서 왔다.

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은 마치 낯선 타국에서의 날과 같다는 의미도 있다.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. 한자의 순례(巡禮)라는 단어는 예배자의 길이라는 뜻이다.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배자의 길이라는 뜻이다.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그 주신 언약을 향한 거룩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한다(시84:5).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, 교회와 렘넌트와 세계를 살리는 거

룩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. 특히 우리는 렘넌트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.

**결론-**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고, 그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언약의 여정, 언약의 순례자로 서기를 축복한다.